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호주 금융기관, 유럽금융기관의 아시아지역 사업부문 인수

- 호주의 거대은행그룹인 ANZ는 구제금융 상황을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유럽 금융기관의 아시아지역 사업부문 인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함.
 - ANZ는 8월에 Royal bank of Scotland의 6개 아시아지역 사업을 5억5천만달러에 인수하였고, 10월에는 자국내 ING 자산관리 및 보험조인트 벤처사의 지분 중 51%를 16억달러에 인수한 바 있으며, 향후에도 유럽금융기관의 아시아지역 사업부문에 대한 추가 인수 계획이 있다고 언급함.
 - ANZ는 현재 자국내 자본적정성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50억 호주달러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인수에 활용한다고 밝힘.
- 그 밖의 호주계 금융기관 중 Macquarie Group, Common wealth bank of Australia, National Australia Bank 등은 최근 유럽·미국지역의 보험 및 은행그룹이 매각하기로 결정한 해외사업을 인수하고 있는 추세임.
 - 투자은행인 Macquarie Group은 최근 유럽금융그룹들의 미국내 해외사업부문 중 2~3개를 인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.
 - Common wealth bank of Australia는 영국계 HBOS의 호주지역 사업부문인 BankWest를 인수한 바 있음.
 - National Australia Bank는 영국계 Avia의 호주지역 자산관리 사업을 인수함.
- 최근의 유럽계 금융기관 중 국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금융기관들은 유로 집행위로부터 자산 매각 압력을 크게 받고 있으며, 특히 아시아지역 해외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을 가장 먼저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짐.
 - ING는 유로집행위원회로부터 보험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매각할 것을 지시받고 최근 4년에 걸쳐 은행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함.
 - 최근의 유로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장기적 성장과 관계없이 가장 매각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부터 매각하도록 종용받고 있는 상황임.

(Financial Times 10/30)